

물동량 대폭 늘리고 여수 등 지역연계 강화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10년... 현황과 과제

120억 달러 자본 유치... 인천에 이어 2위 전문인력 R&D 등 국제교류기반 갖춰야

정부는 최근 2022년까지 국내 8곳의 경제자유구역을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총 82조원을 투입하고, 투자기업을 지원 확대해 20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계획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성과가 없는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을 취소하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엔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부산·진해, 인천과 함께 지정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하 광양 경제자유구역)은 오는 10월 지정 10주년을 맞는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에서 인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쌓아놓은 성과는 있지만, 더딘 개발 등 앞으로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종합 개발진척도 47.8% = 지난해 정부의 종합평가에서 광양 경제자유구역은 개발부진 1위를 차지했다. 2020년까지 83.7km의 면적에 18.9조원을 투입되며 여수와 순천, 광양, 경남 하동 일원 등 5개 지구 23개 단지로 구성됐다. 종합 개발진척도는 47.8%다. 개발이 완료된 곳은 3개, 진행 중 8개, 미개발지 12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10년이 지나지만, 아직 절

반도 개발하지 못한 셈이어서 기업유치를 통한 산단 및 배후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광양 경제자유구역은 지구별 기능특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광양지구는 광양항을 기반으로 동북아 물류거점 자리잡기만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연간 548만TEU의 처리능력을 가진 광양항은 3년 연속 200만TEU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수출입 물동량이 부산항에 집중되는 탓에 절반도 안 되는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울촌지구는 포스코, 여수국가산단과 연계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생산이 중점이다. 제1산단은 80% 이상 분양됐다. 입주업체도 80개가 넘었다. 신덕지구는 복합형 성장거점기능을 담당한다. 순천 신대배후단지는 100% 가까운 조성률을 보이며 개발 중이다. 신규 배후단지 개발계획도 승인을 얻었다. 화양지구는 남해안 거점관광지 및 동북아 해양관광의 허브기능을 하고, 하동지구는 글로벌 해양플랜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20억 달러·134개 기업 유치 = 지난해까지 120억 달러의 국내외 자본과 134개 기업을 유치했다. 고용인원만 3만982명. 지난해에는 20개 기

업을 유치하며 13억8000만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이 가운데 국내기업 93개, 외투기업 41개를 유치했다.

국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를 일본(2개), 중국(4개)으로 늘렸고, 외국경제단체 등의 산업시찰도 200여 회를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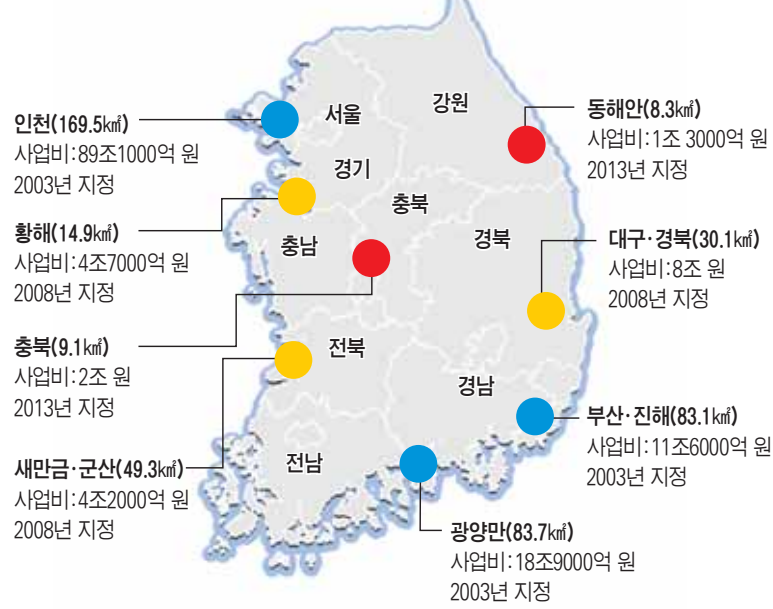
눈에 띄는 것은 현재 개발중인 8곳의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개발 성과가 가장 앞선다는 것이다. 종합진척도가 50%를 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게 위안이다. 지난해까지 총 8.5억불(신고액 기준)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신대배후단지는 개발이 거의 완료됐으며, 전남 최초의 외국인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다. 3928세대의 아파트 분양도 마무리했다.

◇물동량 증대 및 지역 연계 강화 = 광양 경제자유구역은 국제 항만 등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력산업(철강)의 기반이 견실하다. 반면 수출입 물동량이 부족하고, 여수와 순천 등 단지 간 연계가 미흡한 것이 흠이다. 전문인력과 R&D 지식기반 등 국제교류기반도 취약하다. 다른 경제자유구역과의 동북아 연결도 이겨내야 한다.

정부는 광양 경제자유구역의 핵심프로젝트로 해양플랜트 클러스터와 정밀화학기술연구를 지원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물류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선 연간 1200만TEU 규모의 물동량 창출이 핵심과제다. 광양항 활성화가 결국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실적

◆지구별 현황 (단위: 권, 100만 달러)

구분	계	울촌지구	광양지구	신덕지구	화양지구	하동지구
업체수	134	81	35	12	1	5
투자액	12,015	5,076	1,518	1,818	1,501	2,102

◆국내외별 현황 (단위: 권, 100만 달러)

구분	계	외투기업								
		국내	미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기타	
업체수	134	93	41	11	6	5	3	5	1	10
투자액	12,015	7,966	4,049	100	55	126	88	2,823	687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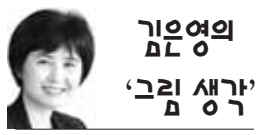
기존 산업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생산거점 조성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소재 및 기초소재 등 철류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선 연간 1200만TEU 규모의 물동량 창출이 핵심과제다. 광양항 활성화가 결국

장점을 이용해 삼성이나 대우 등 국내 대기업 조선업체 유치도 경쟁력을 한층 키울 수 있다. 또 신소재 산업을 유치해 대기업과 연계시키는 것도 시급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복날의 풍속화... 그림 보기가 불편하신가요?



(35) 초복

며칠 전 점심시간에 들렀던 삼계탕 전문 식당은 번호표를 받고 한참 기다려야 할 정도로 붐볐다. 날모레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으로 복달임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서인자 긴 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늘 삼복더위 무렵엔 최석운 작가의 작품 '복날'(1993년 작)이 떠오른다. 나무에 매달린 개와 두 남자, 곧 이어질 성찬을 기대하는 여인의 야릇한 눈빛, 잠시 후면개를 풀일 가마솥에 보란 듯이 방노하는 또 다른 개???. 중심과 주변을 향하는 이들의 각기 다른 시선이 화면에 긴장감을 준다. 처음 이 그림을 접한 것은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트 바르도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신 작가가 '개고기 논쟁'으로 한창이던 십수년 전이었다.

은퇴 후 동물보호운동에 앞장선 브리짓트 바르도는 '한국인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더 이상 식용으로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이 그림을 보았을까. 바르도는 잔인하게 개

최석운 작 '복날'

를 죽이는 것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즉시 바르도에게 공개적인 답신을 보내 후자엔 동의하지 않으나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라도 "남의 음식문화에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최석운 작가는 "작품 구상은 개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내재한 폭력, 야만에 대해 생각하는 데서 주변을 향하는 이들의 각기 다른 시선이 화면에 긴장감을 준다. 처음 이 그림을 접한 것은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트 바르도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신 작가가 '개고기 논쟁'으로 한창이던 십수년 전이었다.

작품 '복날'은 누군가에게 불편한 그림일 수 있지만 실제하는 현실을 묘사한 현대적 풍속화로, 풍자와 해학을 통해 감추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들춰내고 있는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감사원 "대운하 염두에 두고 4대강 추진"

건설사들 호텔서 담합 회동... 국토부는 방조

청와대 "사실이면 국민 속인 것... 대책 마련"

전임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손해를 입힌 큰 일"이라고 비난한 뒤 대책마련 주력하도록 주문했다.

실제·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2008년 6월) 이후인 2009년 2월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대형 건설사들이 손쉽게 담합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건설사들의 호텔 회동 등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국토부는 2011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목표로 사업비 4조1000억원 규모의 1차 터기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담합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대운하 추진안을 반영하느라 당초 계획보다 보(泔)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수심 유지관리비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정위가 4대강 1차 터기공사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총선과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1년 이상 방치하다 이듬해 5월에야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공정위가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에 과징금을 가중 부과(최대 30% 이

내)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차 터기공사와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도 가격담합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공정위원에게 위반행위를 조사토록 통보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진도를 확실히 밝히고,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수석은 이어 "그래서 국민에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사실대로 알리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사둔남말'이 맞을 때도 있다

전국과 지우 © 1983 Toho Co., Ltd.

들개 野良犬 1949

조용한 결투 静かなる決闘 1949

추문 醜聞 1950

라쇼몽 羅生門 1950

백치 白痴 1951

이키루 生きる 1952

7인의 사무라이 七人の侍 1954

거미집의 성 蜘蛛巢城 1957

숲은 요새의 세 악인 隠し砦の三悪人 1958

요즘보 用心棒 1961

쓰바키 산주로 椿三十郎 1962

천국과 지옥 天国と地獄 1963

붉은 수염 赤ひげ 1965

마다다요 まあだだよ 1993

7.13~14 일본을 대표하는 여배우
가가와 고코 특별 초청

7.13~7.20 광주극장
구로사와 아키라 특별전

주최 | 광주시문화재단 | 광주일보 | 일본국제교류기금 | 후원 | KOICA | 문화체육관광부 | 주한일본대사관 | 후원 | 한국문화재단 | 인천 | 롯데제과(주)

문의 | 광주극장 cafe.naver.com/cinemagwangju 062-224-5858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www.jpj.or.kr 02-397-2828